



LG CNS, 유엔난민기구 기술 지원

LG CNS는 유엔난민기구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신균 LG CNS 사장(오른쪽 두번째)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신한카드, 'GIVE & RUN' 캠페인 실시

신한카드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GIVE & RUN(이하 기부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금을 세계자연기금(WWF)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해창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왼쪽)이 송정호 세계자연기금 마케팅본부 국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신한카드



한국씨티은행, '개인 컵 사용의 날' 행사

한국씨티은행은 환경 보호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개인 컵 사용의 날'과 '로비 음악회'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씨티은행 지속가능성 협의회가 기획하고, 서울시와 한빛예술단이 협력해 진행됐다. /한국씨티은행



넷마블문화재단, '2025 게임탐험대' 진행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2일 넷마블 본사에서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25 게임탐험대'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게임산업 및 게임업계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넷마블문화재단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 오픈

에이스침대가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을 오픈했다. 2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은 약 243평(803㎡) 규모로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에이스침대의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에이스침대

조현민 사장, 'VISION 2045' 선포... "지속가능 미래 기여"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조원태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참여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기업 도약"

"100년, 그 이상의 시점이 지나도 더욱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된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진그룹의 도전과 성장의 여정을 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945년 11월 한진상사 창업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역사는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창업주 회장님의 '수송보국(輸送報國)' 경영철학의 기틀과 선대 회장님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물류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한진그룹의 역사와 경영철학, 미



조현민 한진 사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된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미래 전략을 담은 '그룹 VISION 2045'를 소개하고 있다.

래비전, 문화예술, 고객에 대한 감사 및 임직원과의 동행까지 모두를 하나로 잇는 다리(Bridge)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빛나는 80년 역사는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임직원들이 있었다"며 "회사 성장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 임직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는 한진그룹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수송의 본질이 마음

과 마음을 잇는 일임을 생각하며 국민 성원에 보답하고 고객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현민 한진 사장은 한진그룹의 새로운 미래 전략을 담은 '그룹 VISION 2045'도 선포했다.

조 사장은 "한진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쉽없이 나아가 있다"며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풍요로운 삶과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이커머스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 ▲AI 기반 초자율화 등을 통해 물류 기술 혁신 선도 ▲국내 방위산업 및 우주발사체 제작 등 축적한 기술력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우주 물류 솔루션 구축 ▲IT역량 및 첨단 AI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수송 물류 경험 제공 ▲항공 및 물류의 유기적 연계·활용한 관광·호텔·부동산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부가가치 창출 ▲인재 및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CSV 및 사회공헌 활동 등 ESG 경영 확대 등 총 7가지로 나눠 미래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항공우주사업과 관련해 조 사장은 "우주에 사람을 보내기에 앞서 관련 물류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며 "폐기된 인공 위성을 회수하거나 우주 광산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라파엘 나달 파트너십 연장

"끊임없는 도전정신, 기아 철학 맞닿아"

"위기의 상황에서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아와 제 인생의 2막에서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인 테니스 레전드 라파엘 나달이 2004년부터 우정을 이어온 기아에 대한 남다른 인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나달은 첫 공식 일정으로 기아와의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을 진행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기아는 23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브랜드 체험 공간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송호성 기아 사장, 나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후원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개최했다.

송호성 사장과 나달은 이날 파트너십의 의미를 담은 명판에 서명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의 발전을 약속했다.

송 사장은 "나달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은 기아가 추구하는 브랜드



송호성 기아 사장(오른쪽)과 라파엘 나달이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공식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에서 재계약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며 "2014년 17세 신생 선수 시절부터 세계 최정상 선수로 성장했을 때도 변치 않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나달은 "앞으로도 기아와 상호 영감을 주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혁신을 향해 도전하는 기아의 여정에 힘을 보태고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5주기 추도식

이재용 회장 등 삼성 경영진 대거 참석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사진)의 5주기 추도식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엄수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추도식에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150여명도 선영을 찾



는다.

추도식 후 이재용 회장과관계사사장단은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건희 선대회장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선대회장은 1987년 부친인 이병철 창업회장 별세 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고,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로 대표되는 '신경영 선언'을 통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부음

▲ 김도하 씨 별세, 김대일(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윤일(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한국증권금융상임감사)·김지윤(치과 의사)씨 부친상, 박영배 씨 장인상 = 22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5일. 051-607-2990
▲ 김태숙씨 별세, 이창섭(전 한국전력 부사장)씨 부인상, 이준호(캡코솔라㈜ 대표)·이준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이준희씨 모친상, 박찬국(서울대 교수)씨 장모상, 심

연진·김선정(한국렐리 전무)씨 시모상 = 23일 오전 3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5일. 02-3410-3151
▲ 정동윤(12·13대 국회의원·전 지역난방공사 사장·전 문경CC 사장·전 동북학원 이사장·향년 88세)씨 별세, 정인환·정인경·정미경·정진환씨 부친상, 김희정·성주현씨 시부상, 유재욱씨 장인상 = 23일 오전 6시 3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5일. 031-787-1510

한화그룹, 차세대 무탄소 선박 개발 착수

HMM·KR 기술협력 MOU 체결

한화그룹이 HMM, 한국선급(KR)과 함께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개발에 착수하며 해운·조선·에너지 기술 분야 간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2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파워시스템을 포함한 한화그룹 4개 계열사(파워시스템, 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는 HMM, KR과 함께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운, 조선, 선박 추진기술, 선급인증 등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국내 주도형 무탄소 선박 솔루션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7~8K급 컨테이너선에 적용가능한연료전지·암모니아·가스터빈 기반 통합 추진 시스템과 2K급 피더 컨테이너선 적용용연료전지·배터리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념설계, 경제성 평가 및 신선휘 개발을 공동 수행한다.

/원관희 기자 wkh@

